

KOICA는 지난 5월 14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립소아병원에
아동진료센터를 개원했다. 센터는 응급실, 외래, 신생아 집중치료실 등을
포함한 4층 건물로 구성돼 있다. 센터에서 진료받고 있는
엄마와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다.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 INSIDE 건축 통해 개도국 환경 개선하고 있는 김원철 건축가
KOICA VIEW 아이와 산모 살리는 병동 '업그레이드'
OVERSEAS KOICA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2018. Summer
Vol. 9
World's Friend KOICA
Newsletter

지구촌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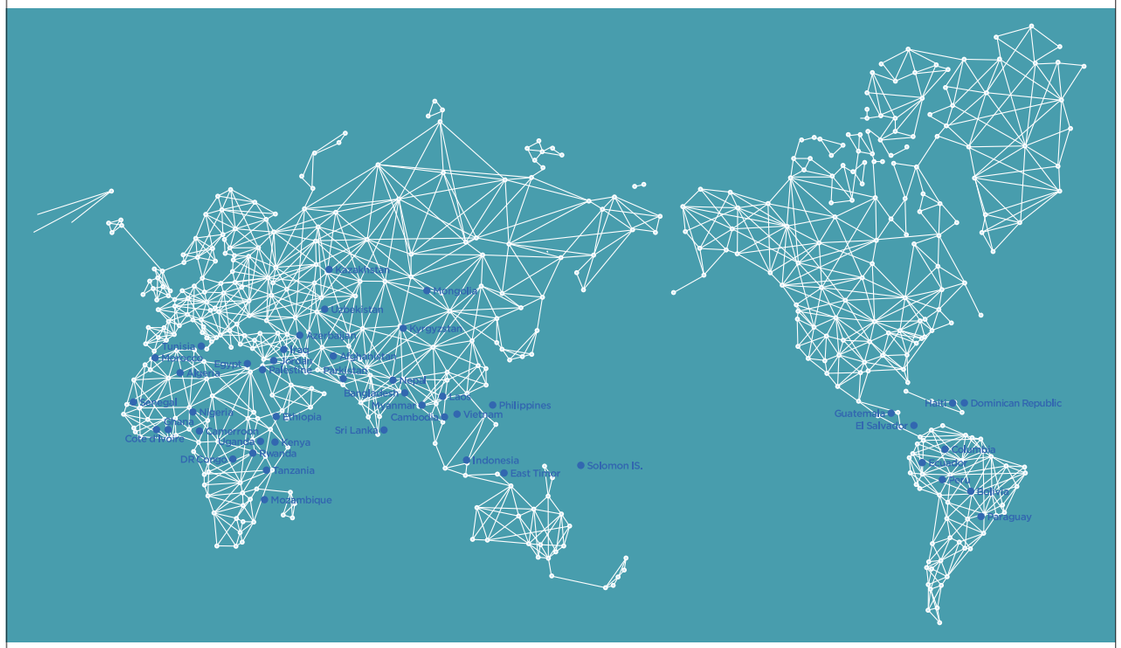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THINK ODA, WITH KOICA
WWW.KOICA.GO.KR

ABOUT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서 추진해오던 대외무상 원조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효과적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자 1991년 4월 외교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으로 KOICA를 설립하였습니다. KOICA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OICA는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에너지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해외봉사단 파견, 글로벌연수, 민관협력, 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 등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NGO, 기업,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범국민 참여 개발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OICA가 추진하는 개발협력사업은 지구촌 빈곤퇴치와 환경, 인구, 질병, 인권 문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글로벌 인재양성과 우리 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며,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 간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CONTENTS

2018. Summer / Vol. 9

KOICA INSIDE
코이카 人사이드

04
DR콩고에서 국립박물관 건설 중인 김원철 건축가
"개도국 전문 건축가 역량 키웁니다"

08
KOICA YP 경험 통해 취업 성공한 최수진씨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 업무에 큰 도움"

11
도미니카 내 '아이티 이주민' 위해 일한 이민아 봉사단원
"이주민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보고 감동"

14
콜롬비아 한-콜 우호재활센터의 강은지 봉사단원
"다친 병사들 미술로 치유, 저도 행복해요"



KOICA VIEW
코이카 뷰

16
KOICA의 가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아프면 병원 가는 걸 당연하게

19
캄보디아에 건강 선물하는 KOICA
아이와 산모 살리는 병동 '업그레이드'

22
베트남, 끝나지 않는 불발탄과 전쟁
KOICA의 도움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24
카메룬 난민 문제 앞장선 KOICA와 UNHCR
"난민들 지역사회 편입과 홀로서기 도와줍니다"



OVERSEAS KOICA
세계 속 코이카

26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공교육 경쟁력 높이는 데 KOICA가 함께 달리다

30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데이비드 & 에밀리
"ICT 활용으로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32
건강·일자리·환경까지 '득템'
과테말라 쿡스토브 보급 사업

WHAT'S ODA
ODA 알아보기

34
채팅 기반 영어회화 교육 플랫폼 '텔라'
우간다 청년에 일자리를 선물하다

37
주사기 자동처리기기 개발한 '뮨'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병원 만들어요"

40
베트남 유통산업 발전 돕는 '롯데'
젊은 그대들을 유통·서비스 인재로

World's Friend
KOICA

발행인 이미경 **등록일자** 1994년 12월 5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18-04-148
발행일 2018년 7월 9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462-833)
전화 031-740-0114 **팩스** 031-740-0655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KOICA 홍보실 **제작**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조광프린팅

KOICA 뉴스레터 〈지구촌가족〉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코이카)은 대한민국의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합니다.



01

DR콩고에서 국립박물관 건설 중인 김원철 건축가

“아프리카 역사 발전에 도움 주고 개도국 전문 건축가 역량도 키웁니다”

10여년 전 MBC 〈러브하우스〉 출연으로 높은 인기를 얻은 김원철 건축가는 현재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함께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국립박물관을 건설 중이다. 왜 한국에서의 성공을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떠난 걸까?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세계적 빈곤퇴치 운동가 폴 폴락(Paul Polak)은 전 세계의 90%가 10%의 부를 가진 사람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그럼 누군가는 나머지 90%의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소외된 90%, 그중에서도 아프리카를 위해 일하는 김원철 건축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원지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김원철

Q_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과 담당 업무에 대해 소개해 달라.

“DR콩고 국립박물관 건립사업은 DR콩고 정부의 요청으로 2012년 시작됐다. DR콩고의 수도 킨샤사에는 4만 5000여 점의 다양한 유물이 있지만 낙후된 시설과 관리 부실로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사라진 상황이다. DR콩고와 KOICA는 박물관 건립을 통해 유물을 보존함과 동시에, 국민의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고 민족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사업에 착수했다.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로 일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 계획안과 도면 검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현재는 현장 전반의 공정을 관리하면서 건축 자재 검수, 현지 유관기관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물관 건설은 46% 정도 공정이 진행됐으며 2019년 개관이 목표다. 약 2000만 달러가 투입된 이 사업에는 한국인 관리자와 팀장 8명, 현지 기술자 7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면 사후 관리를 위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 박물관 운영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Q_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한국에서 건축회사를 다니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 사회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경쟁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NGO단체 팀앤팀의 인도네시아 · 케냐 우물 개발사업과 국제여성가족교류재단의 에티오피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면서 개도국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건축에 큰 보람을 느껴 지금까지 지속하게 됐다.

아프리카 지역을 선택한 데는 청년 시절 프랑스 유학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유학 이후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개방형 화덕에 굴뚝을 설치해 폐질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한 프로젝트다. 이때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건축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이번 DR콩고 사업에도 지원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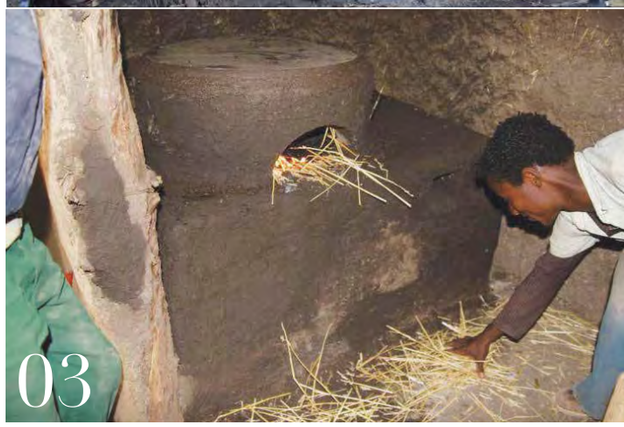
Q_박물관 건축에 있어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기술의 측면에서 킨샤사 지역 기후와 환경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을 적용했다. 킨샤사는 적도에 가까이 위치한 지역으로, 고온다습한 우기와 메마른 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다. 내게는 건축을 통해 열악한 개도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02



03

01
DR콩고 국립박물관 건설 현장
02 03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에 설치한 굴뚝 1호와 화덕

등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외벽을 이중벽으로 만들어 복사열을 차단해 실내의 온도 상승을 막고, 박물관 내에는 자연통풍이 이루어지게 설계해 에어컨이 없어도 쾌적한 실내공기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일반적으로 박물관 전시장에는 사용하지 않는 채광창을 설치해 전기 공급이 끊어져도 관람자가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경제 성장에도 일조하기 위해 DR콩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시멘트, 모래, 자갈, 철근을 사용하고 있다. 강도테스트 실시 결과 설계 기준에 합당한 자재들이었다. 현지 인력 또한 공정에 따라 70~80명 정도 고용하고 있다."

*패시브 디자인(Passive Design): 채광, 환기, 단열 등 기본적인 건축 요소를 활용하는 친환경 설계 방법. 신재생 에너지 및 설비를 통해 기술 중심의 친환경 건축을 설계하는 액티브 디자인(Active Design)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Q_현재 종족 분쟁, 반군과 정부군 대립으로 인해 현지 정치 상황과 치안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사업 참여자들의 생활 반경은 사업 현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위험 요소들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다. 다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생계형 범죄가 있어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01
설계 도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02
DR콩고 국립박물관 완공 시 예상 전경
03
전체 현장 전경(2018. 02.17)
04
DR콩고 국립박물관 건설 현장









Q_현지 인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다.

"뭐든지 빠른 한국과 달리, DR콩고에는 다소 느긋한 그들만의 시간관념이 있다. 고도의 산업화를 이룬 한국에서 나고 자란 내게 '시간이 돈'이라는 시간의 경제관념이 없는 이곳 환경은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를 하나의 문화적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은 현지에 맞추고 적응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_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가장 놀라웠던 건 현지 인력의 기술력이다. 한국과 비교할 때 적은 임금(기술직은 한국의 4분의 1, 일반 노무자는 20분의 1 수준, 작업량은 한국의 60% 정도)에도 불구하고 조적(돌이나 벽돌 쌓는 일), 미장(벽이나 천장, 바닥에 시멘트 등을 바르는 일), 철근 가공, 배근(철근을 설계에 따라 배열하는 일) 기술이 아주 좋다. 현지에서도 많이 작업하는 기본 공정들이라 숙련공이 많은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공정(무거운 것을 들거나 먼지가 많이 나는 일 등)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

Q_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2018년은 DR콩고 국립박물관 건축 공사가 마감되는 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전기, 기계 설비, 외부 회랑, 지붕 공사, 내부 마감, 조경 등 남은 공정을 잘 마무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아프리카 사업에 참여해 지역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

Q_마지막으로 원조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KOICA 원조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 개도국에 도움을 줌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개인의 역량에 따라 적정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기에 추천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협력사업의 참여자로서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KOICA YP 경험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최수진씨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4월호 'KOICA VIEW'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4/content1_3.php?code=201804_010103

KOICA YP 경험 통해 취업 성공한 최수진씨

"KOICA 해외사무소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청년들에게 국제개발협력 분야로의 다양한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OICA 해외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ODA 영프로페셔널(구 청년인턴)*이 대표적이다. KOICA 모로코사무소 인턴 경험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 취업에도 성공한 최수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영프로페셔널(YP)**: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OD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청년 인재들을 KOICA 해외사무소 ·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01

Q_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학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2016년 3월부터 KOICA 본부 연수기획실 역량개발사업팀에서 4개월, 이후 모로코 현지사무소에서 8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해 CM(Construction Management)* 해외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있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업의 기획부터 입찰, 설계, 시공, 준공 후 유지관리 등의 모든 단계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회사다. 또한 캄보디아 · 미얀마, 라오스 · 베트남, 서아프리카 이렇게 총 세 개 지역의 KOICA 사업 CM 용역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전공을 살리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하게 되었다."

***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공사의 기획 · 타당성조사 · 분석 · 설계 · 조달 · 계약 · 시공관리 · 감리 · 평가 · 사후관리 등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Q_KOICA 해외사무소 인턴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건축공학을 전공하면 보통은 건설사에 취직을 하게 된다. 졸업을 앞두고 건설사 취직 준비를 하던 다른 동기들과 달리, 해외근무를 하며 평소 꾸준히 공부해온 프랑스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KOICA 해외사무소 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고, 개발도상국에 거주한다는 점과 프랑스어권 지역에 배정이 되면 프랑스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

Q_KOICA 해외사무소 인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

"파견된 모로코사무소에서는 프로젝트, 연수,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중 건축 전공의 특수성을 살려 참여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지원사업(2017~2020년/800만 달러)이 기억에 남는다. 이 사업은 모로코 현지에 녹색기술을 연구하는 친환경 건축연구소를 짓고,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현지 연구원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협력국과의 사업 기획과 진행방향 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모로코 정부 에너지부 사업 담당자와의 회의에서 통역과 회의록 작성을 맡았으며, KOICA 본부에서 심층기획조사단이 출장을 왔을 때에는 함께 공사현장, 설계사무소 등 현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업 기획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기도 했다. 협의의사록* 체결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굴 · 기획되고, 협력국 부처 담당자들과 어떠한 협의를 하는지 등 KOICA 프로젝트 실무를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개별 프로젝트형 기술협력을 시행함에 있어 상대국 실시기관과 협력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사항을 모아서 정리하고 서명한 문서이다.

01
모로코 93기 봉사단원들
02
2016년 12월 모로코사무소 현지 직원들과 자리를 같이한 최수진씨


02

"KOICA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꾸준히 해 귀국 후에는 ODA 자격증도 땄다. 또한 KOICA의 프로젝트 다수가 건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개발협력과 전공인 건축공학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글 황서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최수진

Q_KOICA에서의 경험이 진로 설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턴으로 근무하며 국제개발협력 실무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꾸준히 해 귀국 후에는 ODA 자격증도 땄다. 또한 KOICA의 프로젝트 다수가 건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제개발협력과 건축공학 간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곳이 KOICA의 지역 CM으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희림건축이었다."

Q_현재 캄보디아, 미얀마 KOICA 사업 CM의 PAO로 활동한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PAO(Project Assistant Officer), 즉 프로젝트 실무 전문가는 현지와 국내 간 정보 수집, 조정,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 업무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에 상주하고 있는 CM 담당자의 주간·월간 보고서를 취합 후, 프로젝트의 주요 이슈 사항을 KOICA 본부와 협의하여 현지에 전달하고, 설계도서 검토나 기술 검토와 관련된 문서 작성, 해외 출장자 출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용역 전반의 공정관리 및 행정업무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 미얀마 지역 CM 용역은 현재 약 15개의 건축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다."

Q_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이후 커리어 목표가 궁금하다.

"가장 보람을 느낀 사업은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2017~2020년/1150만 달러)이다. 해당 사업은 미얀마 양곤에 직업기술훈련센터를 신축하여 직업훈련 분야의 교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입찰(시공업체 선정) 업무를 지원하며 전공 공부를 하면서는 배우지 못했던 입찰이라는 개념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첫 시도에는 입찰에 실패했지만 사내 전문가의 도움으로 KOICA 입찰과 조달 규정을 다시 익히고, 이를 현지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미얀마 현지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 국제입찰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현재도 시간을 내서 정부기관이나 해외건설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입찰 관련 세미나와 교육을 듣고 있다. 추후 건축사업의 입찰과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커리어를 쌓고 싶다."



2016년 11월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현장에서

Q_KOICA 해외사무소 인턴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전한다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며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개발협력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며 동시에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선택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현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추천하고 싶다. 짧지 않은 인턴 생활을 하면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느껴 임기 초반에는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태도를 갖는다면 인턴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미니카 내 '아이티 이주민' 위해 일한 이민아 봉사단원

"두 나라로부터 외면받는 그들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 보고 감동"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가정으로 시작한 인류는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이 모여 국가를 형성한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형성되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국가는 큰 형태의 가정이다. 개인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을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는 국가의 울타리 밖에 있고,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민자들. 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 바로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민 집단거주촌에서 봉사한 이민아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단원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인구의 약 10%는 아이티 이주민이다.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혹은 자연재해를 피해 건너왔다. 그들은 도미니카공화국 국적도, 아이티 국적도 아닌 탓에 양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아이티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은 도미니카공화국 사람들은 아이티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척한다. 이민아 KOICA 봉사단원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민들을 위해 2년간 봉사했다. 봉사 기간 동안 그녀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봉사를 통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Q_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3년간 근무했다. 평소 봉사활동이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직장을 다닐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클리닉에서 함께 근무했던 현지동료 제우비

글 원지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이민아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민 집단거주촌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민아 단원의 이야기는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5월호 'KOICA VIEW'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5/content1_3.php?code=201805_010103


01


02


03


04

01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
이주민 집단거주촌 풍경
02
지역 클리닉에서 검진 · 치료
신청을 받고 있는 모습
03 04
아이들의 사회 · 정서적
발달을 위한 미술교육과
체육교육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다.
당신은 사랑을 나누는 천사들 중 한
명이다'라며 진료를 도와준 시각장애인이
내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했다. 그들이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벅찬 감동을 받았다. 전공인 임상병리학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도미니카공화국 의료봉사에 지원했고, 2년 동안 국제 NGO 단체 PSI(Population Services International)가 운영 중인 지역 클리닉의 채혈실 담당자로 일했다."

Q_아이티 이주민 집단거주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다.

"처음 도미니카공화국에 도착해 수도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시내를 둘러봤을 때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된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산토도밍고 동부지역 밧데이(El Batey)에 위치한 아이티 이주민 집단거주촌의 모습은 180도 달랐다. 학교, 약국, 병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었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많았다.
또 거주 공간과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물과 흙이 심하게 오염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위생과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과 성매개성감염질환*에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의료활동과 더불어 여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성매개성감염질환**: 성병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교 또는 성적 접촉(피부 접촉, 입맞춤 등)에 의한 감염

Q_의료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시했다고 들었다.

"의료 검진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된 여성들을 위해 '예방이 우선이다(La prevencion ahora es tu prioridad)'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보건교육을 했다. 성매개성감염질환 예방, 유방암 ·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성교육, 가족계획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료상담과 자궁경부암검사를 실시했다. 오염된 물과 흙, 동물 등으로 인한 세균 감염,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거주촌 아이들을 위한 위생교육도 진행했다. 또 의료 분야는 아니지만 교육의 기회가 없는 집단거주촌 아이들의 사회 · 정서적 발달을 위해 KOICA 봉사단원들과 협력해 미술, 태권도 교육 등도 지원했다. 사실 의사소통도 힘들고 환경도 열악한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클리닉에서 함께 활동한 봉사자들의 오랜 경험과 전폭적인 지원,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Q_건강관리나 위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교육으로 어떻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는지 궁금하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지 인력을 적극 활용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현지인들은 질문이 참 많다. 엉뚱한 질문도 있고, 내용도 참 다양하다. 현지 동료들은 이주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었다.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건용품과 책자도 배포했다. 책에는 가족계획, 성매개성감염질환, 아동보건, 위생, 자궁경부암과 유방암에 관한 내용을 담아 책을 보며 스스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보건 관련 비디오도 상영했는데, 아이들과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Q_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총 243명의 현지 여성이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고, 그중 27명이 자궁경부암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 또한 함께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친 현지 클리닉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아동개발과 의료보건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_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파라구아(Paragua) 지역에 의료보건활동을 갔을 때, 한 시각장애인이 내게 자궁경부암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진료차가 있는 곳까지 먼 길을 모시고 걸어와 진료를 진행했다. 검사를 마치고 집에 모셔다 드릴 때 그분이 내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다. 당신은 사랑을 나누는 천사들 중 한 명이다(En la vida hay seres especiales y tu eres uno de esos angeles que va repartiendo amor.).'"

Q_앞으로의 활동계획은?

"현재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 KOICA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나에게 전공과 경험을 살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고, 앞으로 살아갈 방향 또한 제시해줬다. 2년간의 봉사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국제보건과 개발협력에 대해 공부할 계획이다. 건강 불평등이 어떤 요인에서 비롯됐는지 탐구하고, 불평등 격차를 최소화하는 의료보건사업을 만들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콜롬비아 한-콜 우호재활센터의 강은지 봉사단원

"다친 병사들 미술로 치유 저도 행복을 얻었어요"

여행 중 우연히 만난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강은지 봉사단원. 이후 자신도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 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해 한-콜 우호재활센터에서 활동하며 아직 행복을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행복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Q_자기 소개 및 봉사단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평소 내 좌우명은 '모든 시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다. KOICA 봉사단으로 파견되기 전에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남미 배낭여행을 하던 중 KOICA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던 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얼굴에서 거짓 없는 행복을 보았다. 그 모습에 끌려 KOICA에 대해 알아보았고 나 또한 스스로를 위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 과감하게 지원하게 되었다."

Q_수업의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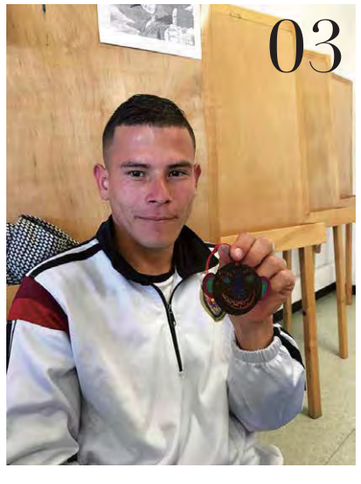
"한-콜 우호재단에서 전쟁후유증을 겪고 있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주 3회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수업 주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 10여 명을 한 그룹으로 해서 2시간 반가량 수업을 진행한다. 전문적인 아티스트 양성을 위한 미술 수업이 아닌 치료와 재활에 목적을 둔 미술심리치료 활동과 재활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Q_미술교육이 군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미술 수업을 통해 콜롬비아 군인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전쟁의 피해로 신체 장애를 얻은 군인들은 재활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종이접기 수업을 진행했고, 전쟁 피해로 인해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군인들의 재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Q_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콜롬비아 내 다른 단원들과 협업하여 한-콜 우호재활센터에서 한복체험, 전통 탈 만들기 등 간단한 한국문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고 진행한 행사였으나 참여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고, 이 행사를 통해 콜롬비아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무척 알차게 진행되어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던 행사였다."





01 전쟁 중 폭발사고로 시력을 잃은 군인이 손의 감각으로만 만든 종이화병을 보여주고 있다
02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한 군인들이 색지를 사용해 기본도형 모빌을 만들고 있다
03 한국문화 체험 행사 중 한 군인이 전통 탈 만들기 수업에서 자신이 만든 탈을 보여주고 있다
04 한국문화 체험 행사에서 전통 혼례복을 입고 있는 여직원과 군인

Q_콜롬비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콜롬비아에 오기 전에는 사회적 ·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러나 봉사단원 활동을 하며 내가 직접 경험한 콜롬비아는 위험한 나라라기보다는 뜨겁고 열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다."

Q_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5월부터 KOICA에서 하는 한국문화 행사(태권도공연 · 한복체험 · 한식체험 · 한글교육 등)를 진행하고, 수업으로는 기초 동양화 수업과 전통한지로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미술심리치료에 목적을 둔 수업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신체적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수업을 개발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Q_KOICA 봉사단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아직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KOICA 봉사단원에 지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머나먼 땅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다면, KOICA 봉사단원에 과감하게 지원해 보기를 권한다."

글 · 사진 강성준(KOICA 콜롬비아사무소 영프로페셔널)



이인석 사업 전문가가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마을보건봉사자(Community Health Volunteer - CHV)
교육에서 마을보건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KOICA의 가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
산모는 병원에서 아이 낳고 아프면 병원 가는 걸 당연하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 13명 중 1명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에 사망한다. 고소득국가*에서 태어난 아이 189명 중 1명만이 5세 이전에 사망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지구촌에는 아직도 매년 전 세계 30만 3000명의 엄마와 560만 명의 5세 미만 아이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이유로 사망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성과 아동 사망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그중에서도 시골 지역의 더 가난하고 덜 배운 집단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2015, Levels and Trends in Child Mortality 2017
**Ghan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Ghan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1

글 · 사진 이인석(갈렙앤컴퍼니 · 서울대학교, 사업담당자)



가나 어퍼이스트주 위치

개도국의 의료 숙제, 모자보건사업

우리가 흔히 '모자보건사업'이라 부르는 프로젝트들은 임산부와 아이들의 사망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와 아이들이 사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상쇄하기 위해 적절한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모성 사망은 주로 산후출혈, 고혈압 관련 합병증, 패혈증, 낙태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정기적으로 산전관리를 받게 하고, (집이 아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시설에서, 숙달된 의료 인력에 의해 분만하게 해야 한다.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에는 폐렴, 설사, 말라리아, 신생아 분만 관련 합병증 등이 있다.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해야 하며 폐렴, 설사, 말라리아와 같은 질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보건의료시설을 방문해 적절한 처치와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130만 명 거주하는 어퍼이스트주에 5년간 900만 달러 투입

가나 CHPS 기반 지역보건체계 강화사업은 약 1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가나 어퍼이스트주(Upper East Region)에 5년간 900만 달러(약 96억 원)를 투입해 임산부와 아이들의 사망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대규모 모자보건사업이다. CHPS(Community–based Health Planning and Services)는 지역사회 기반 기초보건체계를 뜻하는 용어로, 지역 단위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하는 가나 보건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다. 이번 사업은 CHPS를 업그레이드하고 강화한다는 의미로 현지에서 'CHPS+(플러스) 프로젝트'라 불리고 있다. 이 사업은 앞서 언급한 모성과 아동 사망 감소를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로 '임신 중일 때, 분만할 때, 아이가 아플 때 보건의료시설에 가서 적절한 처치를 받게 하는 것'이다.

아이는 병원에서 낳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직도 가나에서는 임산부 중 73%만이 보건의료시설에서 분만을 하고, 53%의 아이들만이 설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처치를 받고 있다.

보건의료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방문이 필요한 곳인지 알지 못하거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줄 알고(대부분 모자보건 서비스는 무료임) 임산부와 아이들은 시설을 찾지 않고 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보건의료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어퍼이스트주 669명의 마을보건봉사자와 120개의 마을보건운영위원회를 교육하고 동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어퍼이스트주 내 모든 산모가 보건의료시설에서 분만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매년 300여 명 보건의료 인력 대상 캥거루 케어 등 교육 진행

이렇게 인식이 변화된 산모와 아이들이 보건의료시설을 찾았을 때, 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질 높게 제공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장비, 의약품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나의 많은 보건의료 인력들은 역량이 부족하고, 시설 또한 매우 열악하다.

이에 KOICA CHPS+ 프로젝트는 매년 300여 명의 보건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한 분만, 응급 산과 처치, 신생아 관리, 신생아 호흡법 및 캥거루 케어*, 초음파 활용법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20개 보건지소, 49개 보건소, 6개 군병원, 1개 주병원에 필수 의료기기를 제공해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함 없이 그들의 술기를 펼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캥거루 케어: 신생아를 엄마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고 털모자를 씌워 아기 체온을 섭씨 2도 정도 높이는 신생아 보호 방법. 인큐베이터 등 비싼 의료 장비를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저체중·저체온으로 위기를 겪는 신생아를 살려내는 효과적인 방식 중 하나.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가나 보건청 직원들이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여러 활동들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KOICA는 가나 보건청 관리 인력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주보건청, 군보건청, 구보건청 직원들에게 수퍼비전, 리더십, 예산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응급후송 시스템 강화를 위한 오토바이 앰뷸런스(Motorking), 보건의료 인력의 가정방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오토바이 제공,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업평가, 성과관리 활동도 현지 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어이없는 죽음이 최소화되는 그날까지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예방 가능한 단순한 원인에 의해 죽어가는 이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KOICA는 2020년까지 CHPS+ 프로젝트를 통해 가나 어퍼이스트주에서만큼은 더 이상 어이없는 이유로 죽어가는 엄마와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상의 그 누구도 기초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해 본다.


마을보건운영위원회 멤버들이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모습


프놈펜 국립소아병동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와 엄마

캄보디아에 건강 선물하는 KOICA
아이와 산모 살리는 병동 '업그레이드'

국제사회는 2000년대부터 캄보디아의 영유아와 산모 사망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현지 영아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더구나 킬링필드 학살로 상당수의 의료 인력이 목숨을 잃어 캄보디아 내 보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가 프놈펜 소아병동 기능개선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자.

글·사진 송승환(KOICA 홍보실 인턴기자)



01



02



03

01 02
KOICA가 한-캄 친선병동에 건립한 아동진료센터
03
개보수가 진행 중인 한-캄 친선병동 내부 모습
04
프놈펜 국립소아병동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아이와 엄마

캄보디아, 신생아·영아 사망률 수년째 제자리

캄보디아 정부는 2008~2015년 보건전략을 수립해 모자보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의 사망률,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수년째 정체다. 2014년도 기준 캄보디아 출생아 1000명당 1세 미만 영아사망률은 50.04명으로 우리나라 영아사망률(3.86명)의 약 13배에 달한다.* 캄보디아에는 24개의 주립병원이 있지만 부족한 병상시설과 전문인력난으로 산모 및 영아 질병 악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첨단장비와 전문의료 인력을 24시간 필요로 하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설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치료실의 설치와 운영을 기피하고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중앙정보국(CIA)

KOICA, 2005년 프놈펜에 친선병동 지어

KOICA는 일찍이 캄보디아의 모자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프놈펜에 위치한 국립소아병원 내 한국-캄보디아 친선병동(이하 한-캄 친선병동)을 지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KOICA는 2013년 '국립소아병원 기능개선 사업'을 착수, 현재까지 한-캄 친선병동의 개보수와 증축, 의료기기와 임상교육훈련 기자재 지원, 현지 의료인 초청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신생아 치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캄 친선병동 내 아동진료센터를 개원했다. 센터는 응급실, 외래 및 신생아 집중 치료실 등을 포함해 4층으로 구성돼 있다.* 원내 어린 환자들을 위한 도서실과 휴게실도 마련돼 있으며 층별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다, 숲, 꽃밭, 우주 등을 테마로 벽이 꾸며져 있다.

***병원 층별 배치:** 1층-응급실, X-ray 및 CT 촬영실, 외래진료실, 약국 / 2층-중환자실 / 3·4층-일반병실

KOICA는 국립소아병원에 다양한 기자재도 지원했다. CT, X-ray, 초음파기기 외에도 신생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기기를 확충했다. 더불어 전압이 불안정한 현지 사정을 감안해 정전 시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와 발전기를 지원하여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만들었다.

KOICA로부터 의술 전수받는 캄보디아 의사들

병동 개보수 외에 현지 전문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사업도 진행됐다. KOICA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캄보디아에 전수하기 위해 현지 의사와 간호사를 매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워크숍 등을 개최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신생아 집중관리, 감염 관리 등을 주제로 연수를 받은 의사 싼 소웃타(Sun Sovutha)씨는 "연수가 매우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의료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정말 유용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연수를 받은 간호사 속림 페이(Soklim Pay)씨는 "담당 교수님을 비롯한 의료진의 전문성이 인상 깊었고, 배운 내용을 캄보디아에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KOICA는 올해까지 총 690억 원을 투입하여 프놈펜 국립소아병동 기능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윤길 KOICA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소아병동이 캄보디아의 어머니와 아동에게 희망을 전하고, 더 나아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바람처럼 이 사업을 통해 캄보디아의 산모와 아이에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선물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



04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2018.SUMMER

베트남, 종전 43년인데도 끝나지 않는 불발탄과 전쟁
KOICA의 도움으로 '무기여 잘 있거라'

세계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듯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화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불안한 일상을 보내기도 한다. 베트남 역시 그 중 하나다. 전쟁이 끝난 지 43년이 지났지만, 곳곳에 숨어 있는 불발탄으로 인해 베트남의 일부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가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이들이 있다. 바로 한국 무상원조 대표기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의 이야기다.

전쟁 때 1500여 만t 폭탄 투하… 해마다 1500여 명 폭발 사망

베트남전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아직도 전후 상처로 고통받고 있다. 2014년 5월, 꽝빙 지역 푹짝(Phuc Trach) 커뮌에서는 5살, 9살의 팜(Pham) 형제가 우연히 주운 불발탄을 쇠구슬로 착각해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놀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올해에는 부부가 함께 정원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도중 불발탄이 폭발해 남편은 사망하고 부인은 허벅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 불발탄 폭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수가 매년 1500여 명에 이른다.

치명적인 불발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유는 100년 이상 프랑스 독립전쟁 · 베트남전쟁을 거치며 1500만t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 지뢰 · 불발탄은 베트남 전 국토에 걸쳐 80만t, 국토면적의 약 20%(680만ha)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불발탄 문제 해결에 국가적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뢰 · 불발탄 제거 분야 최고급 정책협의회인 '701 위원회', '국가지뢰센터'를 별도로 신설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주요 도시와 중심지는 개발 과정에서 토지 안전성을 확보했지만, 취약지역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발탄 제거 작업을 모두 끝내려면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03

베트남 중부지역서 제거 작업… 피해자와 가족 재활 · 자립도 지원

베트남 정부는 불발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화답해, 3년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 심층조사를 거쳐 지난 3월 9일 베트남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에 착수했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후 피해가 가장 컸던 꽝빙성과 빈딩성 8000ha에 깔린 지뢰와 불발탄을 제거할 예정이다. 베트남 중부지역에 위치한 두 성은 한국의 38선처럼 베트남전 당시 남과 북이 치열하게 대치했던 지역으로 미군의 집중 폭격을 받았다. 이 지역은 베트남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 KOICA는 이 지역에서 불발탄 제거뿐만 아니라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1000명의 재활과 자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KOICA는 오염지역과 안전한 토지에 대한 정보수집시스템 구축과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정보 부족과 분절화, 접근성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여 불발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또한 학교 프로그램 내 지뢰 · 불발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지원하여, 불발탄 위협에 가장 취약한 변방지역 어린이들의 인지제고에 힘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수원국과 국제원조기구인 UNDP(유엔개발계획)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KOICA가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 2000만 달러에 더해 베트남도 967만 달러 규모의 비현금성 재원을 부담하며, 양국 공동으로 공동사업위원회(JPCC) 및 공동사업관리조직(JPMU)을 설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뢰 · 불발탄 제거에는 베트남 군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KOICA와 UNDP는 예산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베트남 측과 함께 사업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KOICA는 수원국과의 강력한 협력에 힘입어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행한 역사의 아픔 씻고 양국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듯

이 사업은 불발탄의 위험 제거, 피해자 지원 이상의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베트남의 경제사회 개발에서 안전한 토지 확보는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KOICA는 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토지정비(land clearance)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는 양극화 개선과 SDGs 정신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발전(No one leaves behind)'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 국가이자, 3위 교역국이다. 경제적인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실시로 양국 간에 더 많은 교류가 오고갈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양국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실하고 심도 있는 우호관계로 다가서길 희망한다.



01



02

01
지난 3월 2일 꽝빙성 바오닝 광장에서 개최된 '지뢰 및 불발탄 통합대응 역량강화사업' 착수식. 이미연 주베트남대사관 공사(좌측 다섯 번째), 김진오 KOICA 베트남사무소장(우측 두 번째) 등이 참석했다

02
지뢰 · 불발탄 제거 장비를 소개하고 있는 베트남 군인들

03
2018년 4월 3일, 베트남 오페라하우스에서 지뢰 · 불발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 고취를 위한 생방송이 진행되었다. 김진오 KOICA 베트남사무소장과 케이틀린 위젠(Caitlin Wiesen) UNDP 베트남사무소장 참석하여 지뢰 · 불발탄 사업을 알리고 국민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글 박찬응(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베트남사무소



KOICA와 UNHCR의 지원으로
설립된 초등학교

카메룬 난민 유입 따른 부작용 해결에 앞장선 KOICA와 UNHCR

"난민들 지역사회 편입과 홀로서기 도와줍니다"

전 세계 난민·국내 실향민 6560만 명. 국내외 매체들은 연일 이들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선진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보도한다. 이렇게 언론이 유럽의 난민들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타국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아프리카 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나라, 카메룬이다. 카메룬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하 중아공)의 내전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대거 수용하고 있으며, 난민 유입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카메룬을 돕고자 KOICA(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와 UNHCR(유엔난민기구)이 나섰다.

내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들 유입… 이미 포화상태

카메룬의 난민 수용 지역은 난민 유입 이전에도 영양실조나 부족한 인프라 등 인도적인 위기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여기에 중아공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며 2차적 문제가 발생했다.

중아공은 2013년 초 이슬람 셀레카(Seleka) 반군이 기독교도인 프랑수아 보지제(Francois Bozize) 대통령을 파면하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내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약 93만 5000명(중아공 전체 인구의 약 20%)의 난민들은 국경 지역인 카메룬으로 피신했고 이 중 약 25만 명이 카메룬 난민캠프, 동부, 아다마와(Adamaoua) 및 북부 지역에 정착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기존의 문제와 더불어 난민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식수위생, 교육 주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KOICA는 이러한 인도적인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UNHCR과 함께 2016년부터 '카메룬 동부 지역 난민 공동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난민 수용 지역에 식수위생, 보건, 교육, 주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난민들이 카메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난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KOICA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현지 공여 성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UNHCR은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카메룬 난민 수용 지역은 점차 생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01


02

01
KOICA와 UNHCR의
지원으로 마을에 설치된
우물

02
난민촌 인근 과밀 학급 풍경

KOICA-UNHCR, 난민 수용 지역에 교육·보건 인프라 지원

사업이 시작된 후 지역사회에는 보건·위생 인프라가 새로 들어섰다. KOICA와 UNHCR은 사업지인 만주(Mandjou), 가루아(Garoua), 메이강가(Meiganga) 지역에 건강센터를, 가도(Gado) 지역에는 모자보건시설을 설립했으며 의료 인력과 장비도 지원했다. 우물 복원, 화장실 설치, 쓰레기 매립지 건설 등 위생환경시설 구축도 진행 중이다. 특히 난민 유입 전에도 부재하거나 열악했던 지역사회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카메룬 지역 주민들에게 난민 포용과 상생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사업지와 인근 지역에는 교육 인프라도 새로 들어섰다. 사업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한 교실 당 200~300명의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았고, 우천 시 물이 새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 다행히 사업을 통해 교실·교무실·화장실 등을 신축 및 증축하여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카메룬 동부 지역 난민공동체 개발사업은 2018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제호 KOICA 카메룬 사무소장은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동 또는 유럽 지역 난민에 비해 카메룬 지역의 난민은 국내에서도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해당 사업은 현지 주민들과 난민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요소에는 풍부한 지원, 수혜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이다. KOICA와 UNHCR 간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카메룬 난민 지원의 관심이 커지기를 기대해본다.

글 이은주(KOICA 홍보실 인턴기자)
사진 KOICA 카메룬 사무소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공교육 경쟁력 높이는 데 KOICA가 함께 달리다

케냐 정부는 2011년 9월 한국 정부에 케냐 초등학교 인프라 구축과 교사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사업 타당성 조사, 실시협의 등을 진행한 후 2014년 6월 케냐 정부와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케냐 정부는 2003년,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두 번째 목표 '보편적 초등교육'과 '만인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을 달성하기 위해 무상초등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교과서, 교수자료 등을 지원하자 초등학교 등록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교육 기회가 확대됐다. 그럼에도 지역 간 교육격차, 낙후된 학교 시설, 교사 부족 등의 문제까지 해소되지는 못했다.

이후 2005년과 2012년에도 케냐 정부는 교육 분야 통합 프로그램(Kenya Education Sector Support Program · KESSP) I, II를 실시하여 교육시스템의 확대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 역시 초등교육 접근성 향상에 기여는 했지만 교사와 학생 간 비율, 교사훈련, 학습교재와 교보재, 교과과정 개편 등의 문제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한국의 ICT 기술과 이러닝 시스템 활용

이러한 교육의 질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케냐와 KOICA는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KOICA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법 전수,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케냐 정부가 교사양성, 학습교재, 교육시설 마련에 있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KOICA는 한국의 기술적 강점만이 아니라 교육과 ICT 기술 접목에 대한 케냐 정부의 관심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했다.

케냐 정부는 2013년 5개년 ICT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며, 초등학생 대상 무상 노트북 보급을 교육 혁신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교육 분야 통합 프로그램에도 ICT 교육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KOICA는 이번 사업을 통해 케냐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 VISION 2030* 등 정책적 노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케냐 전직 대통령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가 발표한 케냐의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대한 장기적 국가개발 계획. 사회 분야의 한 기축으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초청연수 · 현지연수 · ICT센터 건립 등 3단계 사업 추진

1. 초청연수 교육

KOICA는 사업수행기관인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지난 2016년 10월과 2017년 8월, 총 2번의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관리자 과정과 실무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다.

관리자 과정으로 케냐 교육부 공무원 4명이 한국을 방문해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과 실습에 참여했다. 공무원들은 "연수 내용이 정책의사결정자를 위해 잘 구성되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습득한 지식을 통해 업무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무자 과정은 케냐 현지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01
실무자 과정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인 블랙스튜디오(Black Studio)를 방문했다

02
실무자 과정 수료식 후 연수생들이 동의대학교 총장, 한국 지도교수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분	기본 방향	교육 내용
관리자 과정	· 한국의 선진 ICT 활용 교육 사례 학습을 통한 관리자의 역량강화 · 지속가능한 KOICA ICT 혁신센터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	· 교육정책과정 편성 및 집행 · 교원양성정책 및 ICT 교육정책 연구 · ICT 혁신센터 활용 교육 활성화 방안 · 한국의 선진 ICT 활용 교육 사례 · 세미나 지도
실무자 과정	· ICT 활용 실무교육을 통한 ICT 교육역량 강화 · 케냐 현지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 ICT 교수학습방법 · ICT 혁신센터 교육과정개발, 운영 및 평가 · 한국의 초등교육 ICT 활용 교육 사례 연구

글 · 사진 제다빈(동의대학교 영프로페셔널)

케냐 교육부 공무원 4명, 초등교원 12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다.
연수생들은 KOICA가 올해 케냐에 설립할 예정인 ICT센터 운영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컴퓨터를 활용한 교재 개발 활동, ICT 기기 실습, 관련 기관 방문 등을 실시했다. 연수생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강의의 틀을 깰 수 있었다"며 "케냐 교육현장의 인터넷 연결성과 지속성이 유일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통해 케냐 동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 현지연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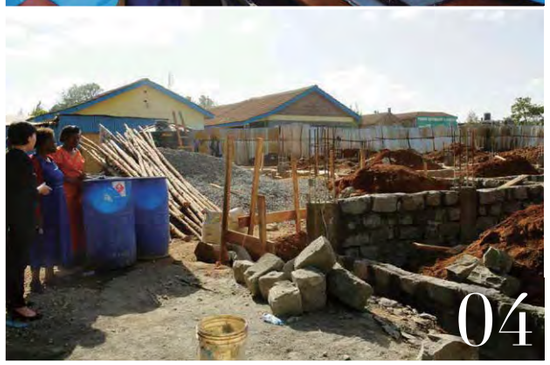
KOICA는 케냐 현지에서도 컴퓨터 활용 기초교육을 가르치는 1차 현지연수(2016년 12월),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법을 가르치는 2차 현지연수(2017년 12월)를 진행했다. 참가 연수생들은 프레지(Prezi · 클라우드 기반 프레젠테이션), 오케이마인드맵(OKmindmap · 웹 기반 마인드맵), QR코드(정보 바코드), 무비메이커(동영상 편집)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다.
연수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번 연수가 케냐에서 ICT 교수 학습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향후 ICT 기술을 적용한 수업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 컴퓨터가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모든 학교가 충분한 수의 프로젝터와 컴퓨터, 인터넷망을 갖출 수 있도록 케냐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연수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인 케냐 교육부 소속 마틴 웬다 쿤가니아(Martin Mwenda Kungania)씨는 "이번 연수는 초등교육에 ICT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케냐 교육부의 노력과 방향을 나란히 한다"며 "연수생들이 학습한 지식을 케냐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3차 현지연수 심화과정은 새로 지어질 ICT 혁신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과정 구분	교육 목표	대상 인원
기초과정 (Basic Course)	기초 ICT 소양역량 함양 및 ICT 활용 교육	100명(100명*1주*1회)
심화과정 (Advanced Course)	ICT 활용수업을 위한 교수설계, 교수매체 개발, 활용	200명(100명*1주*2회)


01


02


03


04


05

01 관리자 과정 초청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컴퓨터 실습을 하고 있다
02 2차 현지연수 참가자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03 2차 현지연수 참가자들이 컴퓨터 하드웨어 조립 실습을 하고 있다
04 우후루가든 초등학교 ICT 혁신센터 건축 현장
05 관리자 과정 초청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3. KOICA ICT 혁신센터 건립

KOICA는 케냐 나이로비 인근에 위치한 은군두(Ngundu) 초등학교와 우후루가든(Uhuru Gardens) 초등학교에 ICT 혁신센터를 건립 중이다. 센터에는 멀티미디어실과 화장실을 포함해 여러 학습도구들이 갖춰질 예정이며,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KOICA는 ICT센터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운영 자문을 담당하는 국내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센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센터 구축으로 초등교원의 ICT 역량 강화뿐 아니라 학생들의 ICT 문해력과 활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으면 더불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and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케냐 교육 분야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기 위해 KOICA는 케냐 정부와 함께할 것이다.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한 데이비드 & 에밀리 "ICT 활용으로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타와부 초등학교(Thawabu Primary School) 교사인 데이비드와 우후루가든 초등학교(Uhuru Gardens Primary School) 교장인 에밀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가 진행한 '케냐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 ICT를 활용한 연수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ICT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법이 아이들을 학교로 이끌어주고, 이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01
에밀리 오몰로 교장이 교장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02
데이비드 다니엘 추루 교사가 학생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Q_케냐에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강화 연수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떠했나?

데이비드: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다. ICT를 활용한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가 진행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에밀리: "30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컴퓨터와 같은 ICT 기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나를 포함한 몇몇 교사들은 이번 연수 기간에 처음으로 컴퓨터를 다뤄 봤다. 그러다 보니 ICT 교육은 상상도 못 했다. 새로운 기술과 이를 활용한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줄지 궁금했다."

Q_연수에 참여해 본 소감은?

데이비드: "연수 참여 당시 나이로비에서 7시간 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밤새 운전을 해서 참석했다. 힘들게 수업을 들었지만 후회하진 않는다. 연수 기간 동안 강연자들의 훌륭한 강의에 매번 놀라움을 느꼈다."

에밀리: "연수를 진행한 강사들의 강의와 교재가 인상 깊었다.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나도 쉽게 컴퓨터 활용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심화과정이었던 2차 현지연수에서는 습득한 기술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웠다."

> "연수 기간에 MS 오피스 · 프레지(Prezi) · 윈도 무비메이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고, 팀별 과제를 통해 실무 활용능력도 길렀다. 수업시간에 연수 때 배운 소프트웨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반응도 정말 좋다."
> **–데이비드 다니엘 추루(David Daniel Churu) 교사**

> "ICT를 활용하자 수업 준비 시간도 단축됐고, 무엇보다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 출석률을 높일 수 있었다. ICT를 활용한 후 아이들에게 학교는 '귀찮은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 **–에밀리 오몰로(Emily Omolo) 교장**

Q_현지연수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교육에 어떻게 도움이 됐나?

데이비드: "연수 기간에 MS 오피스 · 프레지(Prezi) · 윈도 무비메이커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우고, 팀별 과제를 통해 실무 활용능력도 길렀다.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PPT)와 윈도 무비메이커를 배운 것이 가장 유용했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업부터 연수 때 배운 소프트웨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반응도 정말 좋다. 일례로 얼마 전 화산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시각자료를 활용하니 아이들이 화산의 규모와 생김새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수업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에밀리: "연수를 통해 MS 오피스를 비롯해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배웠지만 내겐 수업자료 개발 과제 발표가 가장 도움이 됐다. 각 팀이 준비한 수업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에게 ICT 활용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ICT를 활용하니 수업 준비 시간이 단축됐고, 무엇보다도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 출석률을 높일 수 있었다. ICT를 활용한 후 아이들에게 학교는 '귀찮은 곳'이 아닌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

Q_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데이비드: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한국과 KOICA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덕분에 아이들이 하루하루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더 풍족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에밀리: "KOICA 사업으로 변하는 학교를 보며 내가 지금 시대에 학교를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케냐 교육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KOICA 사업이 아니었다면, 아이들도 나처럼 어른이 돼서야 컴퓨터를 접했을 수도 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서 한국과 KOICA에 정말 감사하다."

글 · 사진 서정욱(KOICA 케냐사무소 영프로페셔널)

건강 · 일자리 · 환경까지 '득템'
과테말라 쿡스토브 보급 사업

문을 열면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뿌연 연기 사이로 불가에 앉아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인다. 옥수수떡과 강낭콩 스튜를 나눠 먹으며 담소가 이어지지만, 매운 연기에 가족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아이들의 기침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과테말라 농촌 가정의 일반적인 식사 시간의 풍경이다. 집안은 요리나 난방을 위해 나무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로 가득차 있다. 문제는 이때 발생하는 유독가스로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굿네이버스가 협력해 개선 쿡스토브를 보급했다.



과테말라 농촌 가정의 약 90%가 요리 및 난방을 위해 나무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집안의 공기는 재래식 쿡스토브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오염되어 있는데, 이는 담배 400개비를 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 실내공기 오염은 주로 요리를 담당하는 여성과 면역력이 약한 아동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재래식 쿡스토브를 사용하는 가정의 여성과 아동은 만성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1400여 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고 있다.

농촌 가구의 75%가 땔감 사용… 환경 파괴 부작용도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말하는 요즘이지만, 농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료는 나무 장작이다. 인근 숲에서 땔감을 가져오면 연료를 구입하는 돈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농촌 가구의 75%가 직접 땔감을 수집하고 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과 여성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아침부터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향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농사일과 건축일을 하며 빈곤을 이어간다.

재래식 쿡스토브의 사용은 국가적으로도 피해를 가져온다. 나라 이름이 '나무가 많은 땅'이라는 뜻의 마야 원주민어에서 비롯되었다는 과테말라는 1990년대에 들어서 15년 만에 전체 삼림면적의 17%를 유실했고, 2000년대에 연간 삼림파괴율이 13%에까지 이르렀다. 삼림 파괴는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동물의 멸종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위기의 증가로 이어진다. 많은 단체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연료 효율이 좋고 유독가스를 집 밖으로 배출하는 개선 쿡스토브를 보급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제개발구호단체 굿네이버스가 2010년부터 굿네이버스형 개선 쿡스토브인 '굿스토브'를 개발하여 보급을 시작했다. KOICA는 2014년부터 굿네이버스와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굿스토브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세계 1만여 가정에 개선 쿡스토브를 공급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클린 쿡스토브 얼라이언스에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기술로 과테말라 최고 수준의 쿡스토브 개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과테말라 내 개선 쿡스토브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외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중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스토브가 보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가스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 국내의 NGO들이 보급해 온 개선 쿡스토브는 나무장작을 사용하긴 하지만, 냄비 하나 끓일 수 있는 작은 크기여서 많게는 10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가정에서는 이전에 보급된 개선 쿡스토브를 버려둔 채 재래식 쿡스토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한 굿네이버스는 KOICA의 지원으로 가정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개선 쿡스토브를 개발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을 이용한 굿스토브는 이전부터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연료 효율과 견고한 내구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3개의 화구로 대용량의 음식을 조리하기에 적합했고, 화구 주위의 철판에는 옥수수반죽을 구워 토르티야를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전문 디자인 업체가 협력해 활용성이 더욱 개선된 차세대 굿스토브를 개발했다. 개선 쿡스토브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 연료 효율을 극대화했다. 공인된 기관을 통해 굿스토브의 성능을 측정한 결과, 30%가 넘는 열효율로 과테말라 내 보급된 쿡스토브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기록했다.



01
굿스토브 3세대 모델 사용
02
굿스토브 생산공장 완공식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업지속성 확보 및 가계소득 증대

KOICA는 개선 쿡스토브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도입과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했다. 기존처럼 쿡스토브를 무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외부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판매 모델을 도입하면 자재 구입비, 생산 인건비, 생산 공장 운영비 등의 제반 비용을 판매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게 된다.

개선 쿡스토브를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과테말라 서쪽의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용접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굿스토브 생산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굿스토브 방문판매 조직을 구성해 지역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사업기간 동안 112명의 여성이 가사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했고, 판매수수료를 자녀 교육비 및 가족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가계 실소득이 증대했다.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가정 내에서 권익이 높아진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연대를 통한 개선 쿡스토브 확산 노력

굿네이버스는 KOICA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 개선 쿡스토브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부인 직속 사회기업국(SOSEP)을 포함한 사회활동 기구와 굿스토브 보급 계약을 체결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가정에 개선 쿡스토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정부의 개선 쿡스토브 입찰에 참여해 개별적으로 보급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보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과테말라 동쪽 지역에 굿스토브 보급을 위한 생산 및 보급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개선 쿡스토브 판매점을 개설하고 방문판매 조직에 새로운 판매 모델을 도입하는 등 개별 판매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과테말라 정부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과테말라 국가경쟁력 프로그램(PRONACOM)은 향후 5년간 5개 주(州)에 22만 5000대의 개선 쿡스토브를 보급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개선 쿡스토브 사용을 독려하는 활동과 함께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다. KOICA와 굿네이버스는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업활동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정부도 굿네이버스가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테말라 농촌 가정의 식사 모습은 달라졌다. 문을 열면 따뜻한 공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반긴다. 매운 연기를 뿜어내던 재래식 스토브가 사라지고, 가족들은 개선 쿡스토브 주위에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담소에도 아이들의 기침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가족의 단란함만이 남는다. 앞으로도 개선 쿡스토브를 통해 더 많은 가족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글 정영준(굿네이버스 과테말라 PO)
사진 굿네이버스

||| 채팅 기반 영어회화 교육 플랫폼 '텔라'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우간다 청년에 일자리를 선물하다





진유하 텔라 대표

"주변 영어국가인 케냐와 비교해도 우간다는 비용 측면에서 강점 있어"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는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를 통해 제 3세계를 돕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대 10억 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은 매력적이지만, '혁신기술'이라는 이름은 부담감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CTS 사업에 있어 반드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널리 상용화된 기술에 개도국을 도울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것으로도 프로그램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기반을 둔 영어교육 플랫폼 '텔라'가 바로 이 경우다. 텔라는 우간다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우간다와 한국을 잇고 있다. 진유하 대표가 말하는 텔라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송승환(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텔라
카툰 홍세훈 작가

Q_텔라에 관해 설명해 달라.

"채팅 기반의 영어회화 플랫폼이다. 전화영어의 채팅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간다 원어민 강사와 실시간으로 1:1 대화와 첨삭이 진행된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으므로 기존의 전화영어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바로 말을 못 해도 생각할 틈이 있으므로 영어 초보자도 비교적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다."

Q_창업을 결심한 계기는?

"대학교 시절 동아프리카로 봉사활동을 갔었다. 많은 현지인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3개 국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해 보니 우간다의 대졸 실업률은 무려 83%나 되었다. 우간다의 상황을 고려한 창업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영어회화 플랫폼을 생각하게 됐다."

Q_채팅 방식이 기존의 전화영어와는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처음에는 전화영어로 시작했다. 하지만 '영어발음을 잘 알아듣기 어렵다'는 고객 의견이 많았다.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던 중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팀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보다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영어를 더 배웠다는 것이었다. 채팅영어는 우간다 강사들에게도 딱 맞았다. 장점인 유창성은 살리되 단점인 발음은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Q_아프리카의 다양한 국가 가운데 '우간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

"우간다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다. 청년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만, 앞서 말했듯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변 영어 사용 국가인 케냐와 비교했을 때 우간다는 비용적인 측면도 우위에 있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이다."



01



02

01
우간다 현지 강사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02
오픈세미나 행사 사진

Q_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사업 초기에는 현지 비즈니스 문화 등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 · 문화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했다. 고용한 지 2년 반 정도 되니 이런 부분들은 많이 극복됐다. 특히 현지 팀 리더의 역할이 컸다. 여러 한국인에게 영어 과외를 지도한 우간다 분인데,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 현지 강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도움을 줬다. 인프라를 말하자면, 사업 초기엔 인터넷이 불안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환경이 많이 개선됐고, 좋은 시설에 입주하게 되어 상황이 꽤 나아졌다."

Q_실제 우간다 강사들의 영어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라는 편견 때문에 텔라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강사를 내세우기보다는 균일화된 수준의 서비스를 보여주려고 한다. 사실 우간다 강사에 대한 만족도나 구매율은 높은 편이다. 서비스가 검증되면 강사의 국적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기존 전화영어 시장에 필리핀 강사도 많고, 이미 영미권이 아닌 강사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국적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다."

Q_KOICA CTS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개도국의 문제를 비즈니스나 기술을 기반으로 풀어나가는 점이 CTS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다. 텔라는 다른 팀처럼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진 않지만,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잘 활용하여 시장을 연결하고 개도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CTS를 통한 지원금이나, KOICA가 가진 노하우, 네트워크도 사업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Q_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KOICA가 도움된 부분이 있다면?

"KOICA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현지에서는 KOICA를 많이 알고 있다. 모르더라도 'Korean USAID*'라고 하면 다들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강사를 구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데 있어 한결 수월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작년 현지에서 진행한 오픈세미나를 들 수 있다. 우간다에서 직접 채용설명회 겸 회사설명회를 진행했다. KOICA의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효과가 컸다.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구직자들도 회사를 보다 신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다. KOICA 현지 사무소에서 해주시는 현실적인 조언들도 많은 도움이 된다."

*USAID(미국 국제개발처): 대외 원조를 담당하는 미국의 정부기관

"우간다에서 직접 채용설명회 겸 회사설명회를 진행했다. KOICA의 스폰서십을 통한 홍보 효과가 컸다.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구직자들도 회사를 보다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다."

Q_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꼽자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팀원들이다. 불확실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믿어주고, 회사를 키워나가려는 욕심도 있고, 다들 실력도 훌륭하다.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매출 측면에선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10배 정도 성장했다. 올해 CTS 프로그램 참여를 기점으로 향후 2년간 10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Q_향후 사업 계획 및 비전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은 강사들이 직접 지도하지만 시스템을 도입하면 고객의 영어문장이 자동으로 분석된다. 분석된 어휘력, 유창성, 문법 등을 바탕으로 맞춤식 지도가 가능하다. 텔라의 비전은 우간다와 동아프리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글로벌 에듀테크 회사가 되는 것이다. 3년 내로 적어도 3개국에서 서비스하고 10배 이상 성장하고 싶다. 텔라가 아프리카 진출에 참고할 수 있는 성공 사례가 되어 아프리카 산업 진흥에도 기여하길 바란다."

*자연어 처리 기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 언어의 이해, 생성 및 분석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술



진유하 대표와
우간다 현지 직원들

||| 주사기 자동처리기기 개발한 뮨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안전한 병원 만들어요"





김유화 뮨 대표

"자동으로 주사기 본체와 바늘 분리 개도국 병원 환경 개선에 도움 확신"

병원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에는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의료진의 안전도 있다. 바쁜 병원 현장에서 주사기를 사용한 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늘에 찔리거나 질병에 감염되기도 한다. 위험에 노출된 의료진들의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낸 기업이 있다. 주사기 자동처리기기(ANDY · Auto Needle Disposal sYstem)를 개발한 뮨이다. 뮨은 다수의 창업 경진대회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현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하노이 공립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뮨의 김유화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황서현(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뮨
카툰 홍세훈 작가





㈜뮨

Q_뮨에 대해 소개해 달라.

"회사 이름 뮨(MUNE)은 'immune(면역성이 있는)'이라는 영어단어에서 나온 이름이다. 보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만들고 여러 감염·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하고, 주사기 폐기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찔리는 자상사고를 예방하는 '주사기 자동처리기기(ANDY · Auto Needle Disposal sYstem)'가 대표 제품이다."

Q_주사기 자동처리기기를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대학에서 'X-디자인'이라는 창업 수업을 들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수업 과제였는데, 여기서 뮨이 시작됐다. 당시 나는 '주사기 재사용'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의료진을 인터뷰하다가 더 큰 문제를 발견했다. 재사용 이전에 '주사기 폐기가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점'이었다. 주사기는 본체와 주삿바늘을 분리한 후 버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삿바늘에 찔리는 자상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다. 실제 의료진 자상사고 중 41%가 주사기를 분리하다 발생했다.* 자상사고는 병원 내 감염안전도 위협하고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주사기 자상사고로 B형간염, C형간염에 감염된 의료인의 비율이 각각 약 37%, 39%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사기를 넣으면 안전하게 자동으로 폐기해주는 기기를 개발했다."

*출처: EPINET, 2009

Q_주사기 자동처리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는 주사기를 주삿바늘과 본체로 분리해, 각각 일반 의료용 폐기물과 손상성 폐기물로 구분해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주사기 자동처리기기는 사용자가 주사기를 기계에 던져 넣으면 자동으로 주사기의 본체와 바늘을 분리하여, 각각 일반 의료용 폐기물통과 손상성 폐기물통에 분리한다. 게다가 주사기와 바늘을 연결하는 부분을 잘라버려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의료인들이 바쁜 업무시간 중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주사기를 처리할 수 있다."

01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8)에 참가한 모습
02
기존의 베트남 병원 주삿바늘 처리용 쓰레기통

Q_KOICA CTS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주사기 자동처리기기의 사용성 테스트를 하며 꾸준히 시제품을 개량해 양산형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기가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병원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많다 보니, 국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실용성이 없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품 개발 전부터 현지 상황을 접목하기 위해, CTS 프로그램 SEED1(기술개발사업) 단계에 참여하게 됐다. CTS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발 중인 제품과 현지 상황 간의 간극을 발견하고, 이를 반영해 현지에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Q_사업 대상 국가를 베트남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트남의 경우 약 88%의 간호사들이 자상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을 정도로 자상사고가 흔히 일어난다. 게다가 베트남의 HBV(B형간염바이러스)* 감염률은 전체 인구의 12%로 전 세계 HBV 평균 감염률인 3.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따라서 의료인이 자상사고를 당할 경우, HBV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베트남 후에대학병원(Hue University Hospital)과 시제품 30대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했고, 하노이공립종합병원과는 300대가량의 시제품을 공급하는 MOU 체결을 진행 중이다."

*HBV(B형간염바이러스): 간염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출처: UNAIDS, HIV and AIDS estimates, 2014

Q_베트남 현지에서 뮨의 제품을 사용해 본 의료진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편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할지는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아직 제품 가격이 베트남에서 상용화될 수준이 아니다 보니, 병원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피드백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CTS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베트남 현지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제품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주사기를 직접 폐기하다가 일어나는 자상사고로 인한 혈액매개 질병 감염과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Q_뮨의 주사기 자동처리기기가 의료서비스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는지?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질병에 감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환자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는 많지만 의료진, 특히 간호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료진이 더 나은 업무환경에서 일하게 되면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사의 잡무를 줄이면 실질적인 간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면 병원에서의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의료인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하고, 환자들은 안심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 병원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을 넘어 태국이나 싱가포르로 동남아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베트남과 한국에서의 사용성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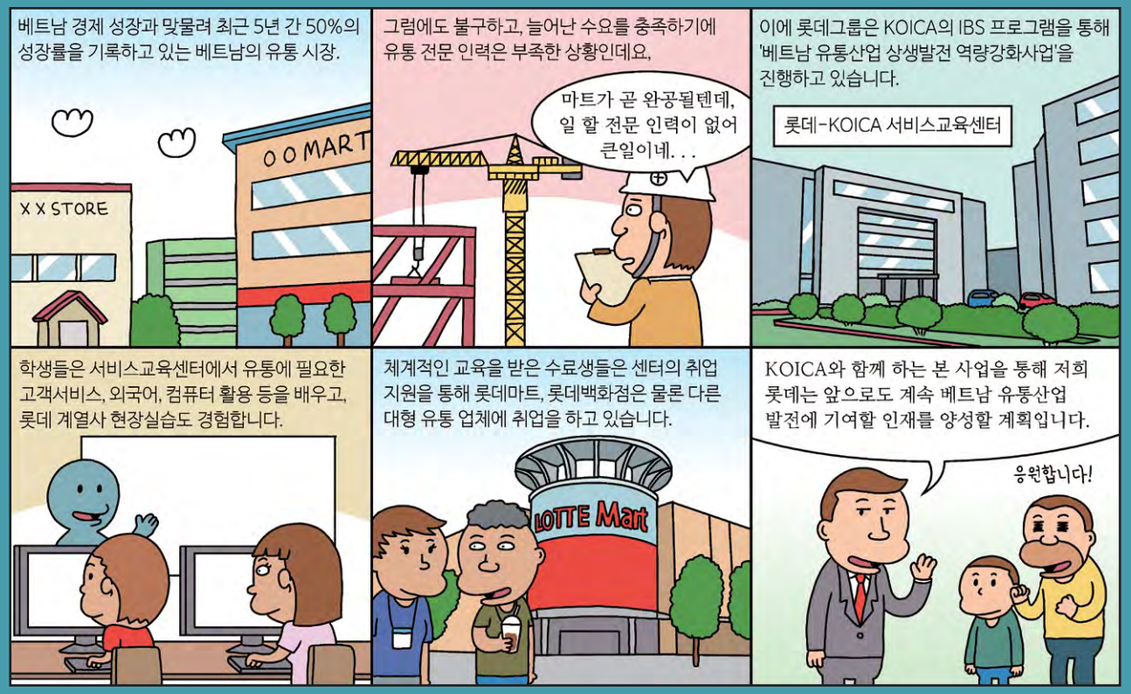






01 02
주사기 자동처리기기 ANDY
03
뮨의 주사기 자동처리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베트남 의료진

||| '평균연령 28세' 베트남 유통산업 발전 돕는 롯데
젊은 그대들을 유통 · 서비스 인재로





이종현 롯데 전무

"베트남에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신뢰의 파트너 롯데만이 할 수 있는 '유통 노하우' 전수"

베트남은 인구 1억 명, 평균연령 28세의 젊은 국가로 내수의 벽에 부딪힌 국내 기업에는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베트남 유통 시장은 급변하여 최근 5년간 성장률은 재래시장이 27.3%, 신(新)유통 시장은 50.7%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신유통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엔 유통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롯데그룹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와 함께 베트남 유통 인재를 육성하는 데 나섰다.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이종현 롯데 전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

글 여지은(KOICA 홍보실 인턴기자) · 사진 롯데
카툰 홍세훈 작가

KOICA와 롯데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은
KOICA 웹진 〈지구촌가족〉 2018년 6월호 'ODA 알아보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ebzine.koica.go.kr/201806/content2_5.php?code=201806_010205







Q_롯데 유통은 동종업계에서 국내 최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의 유통 사업이 궁금하다.

"롯데의 유통 부문은 1970년대부터 유통산업의 변화와 유통 문화의 혁신을 이끌며 업계 1위의 역량을 발휘해 왔다. 특히 1979년 설립한 롯데백화점은 국내 1위로서 선진 유통 서비스와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국내 122개점을 포함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세븐일레븐 등 지난 30여 년간 규모 · 매출 ·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 기업으로 성장했다."

Q_롯데는 그 규모와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중 베트남에서는 어떤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고,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롯데그룹은 베트남에 진출한 지 20년이 되었다. 현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등 유통 계열사뿐만 아니라 롯데호텔, 롯데GRS 등 16개 계열사가 베트남에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약 10조 원이며, 특히 2024년까지 호치민시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에코시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는 베트남에 단순 투자자가 아닌 신뢰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이에 KOICA와 진행하는 롯데-KOICA-IUH* 서비스교육센터(LOTTE-KOICA-IUH Service Training Center, LKIC · 이하 교육센터) 운영사업과 더불어, 롯데재단은 2008년부터 베트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베트남 유소년 꿈나무 양성을 위해 축구단 운영 및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최근에는 롯데시네마의 영화제작교실을 통해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영화제작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IUH(Industry University of Hochiminh): 호치민 산업대학교

01
2017년 6월 개소식
02
컴퓨터 교육
03
2018년 5월 수료식

Q_현재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 Inclusive Business Solution)*을 통해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롯데와 KOICA는 IBS 프로그램으로 협력해 '베트남 유통산업 상생발전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6월 14일 롯데-KOICA 서비스교육센터가 호치민 산업대학교 캠퍼스에 개소했다. 컴퓨터실, 일반 강의실, 조리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35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롯데그룹의 유통 노하우가 반영된 교재로 27명의 강사를 교육했고, 이들을 통해 학생들에게 고객서비스(CS) 교육, 외국어, 컴퓨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 계열사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실제 현장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지 계열사는 현장실습뿐만 아니라 졸업생에게 면접 및 인턴 기회를 주어 취업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기회로 롯데 계열사에 취직한 청년들은 필요역량을 갖추게 되고, 롯데는 중요한 현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베트남의 경제,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KOICA와 롯데는 이 사업을 통해 서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느낀다."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공유가치창출(CSV) 관련 재원을 KOICA의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해 개도국의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개도국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Q_IBS 프로그램 사업의 대상을 베트남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베트남은 연간 GDP 성장률 6%대를 유지하며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신선식품 조리과정

"롯데-KOICA 베트남 서비스교육센터는 교육생 모집, 취업연계 등 베트남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글로벌 사업 성격상 현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KOICA를 통해서 베트남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라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빈부격차가 심하고, 하노이나 호치민 등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학교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롯데는 이번 IBS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된 베트남 고졸 구직자나 취약계층도 도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룹의 유통 · 서비스 노하우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연계도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Q_실제 교육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성과는 어떤가?

"교육센터가 제공하는 수업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트남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객서비스 및 식품 위생 안전 등의 과목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취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센터의 취업 지원을 통해 롯데리아,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 롯데 베트남 법인은 물론 AEON MALL 등 기타 유통업체에 취업해 센터의 이름을 빛내고 있다."

Q_이 성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KOICA의 IBS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나?

"롯데-KOICA 베트남 서비스교육센터는 교육생 모집, 취업연계 등 베트남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글로벌 CSV사업 성격상 현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 KOICA와의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고 현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Q_이번 IBS 사업에 이어 향후 베트남에서의 활동계획 및 목표가 궁금하다.

"센터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 프로그램이나 현지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학습과 면접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KOICA 교육센터가 성장하는 베트남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019년부터는 중소상인들에게도 단기 과정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센터가 현지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Q_KOICA IB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마디 해달라.

"IBS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현지 정부부처의 승인과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다른 프로세스로 인해 사업 준비 기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지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구촌체험관 12차 전시

태평양 도서국가 기획展

KOICA 지구촌체험관 GLOBAL VILLAGE

태평양의 보물섬

전시기간 2018.05.03(목) -2019.02.28(목)

관람시간 10:00-18: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전시장소 KOICA 지구촌체험관

